

# “관광·보건·바이오·에너지 특화 인성 바른 엘리트들 배출하겠다”



“그동안의 성과를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1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동신대 정기연 총장은 “1년 차에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뒤 기반을 조성했고, 2년 차

## 취임 2주년 맞은 정기연 동신대 총장

에는 후속 조치 단행에 박차를 가했다”며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정 총장은 “동신대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는 바른 인성을 토대로 전문지식을 쌓은, 기본이 충실한 인재”라며 “취임 후 인성교육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양과목을 비롯한 교과과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교육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임직평가 제도를 개편했다”고 소개했다.  
동신대는 특성화 분야로 연구와 교육 분야를 선정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문화관광, 보건복지, 바이오, 에너지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신리더, 스마트동신인 인증제,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인성합양 프로그램, 산학연계, 학과별 특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중이다.  
정 총장은 또 “대학 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전공심화를 위한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인 ASP,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3SP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신감과 면학분위기가 고조된 점이 가장 보람 있다”고 밝혔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수는 2007년 101개 팀, 1천223명이며, 올해도 7월 현재 67개 팀 814명이었다. 취업률은 2006년 67.9%에서 2007년 70.5%로 높아졌고, 2008년에는 목표치인 74%를 상회했다.  
정 총장은 “동신대는 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누리사업 대형(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 중형(건강복지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 소형(코디네이션전문인력양성사업단) 사업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더 높이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 “총장님 자부심 잊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3천여통 편지 ‘퇴임선물’

## 오늘 캠퍼스 떠나는 정병석 한기대 총장

“항상 학교를 걸어다니시면서 저희들을 자식처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기대의 놀라운 성장은 총장님 덕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3천여통의 이별 편지를 ‘퇴임선물’로 받은 대학 총장이 있어 화제다. 영광 출신으로 광주 서중-일고를 나와 노동부차관을 지낸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이하 한기대) 총장이 그 주인공.  
정 총장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재선임 과정에서 최근 사퇴의사를 밝히고, 16일 2년4개월여간 정들었던 캠퍼스를 떠났다.  
정 총장은 노동부 산하 특수목적 대학인 한기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성화를 통한 취업률 100% 달성 등 대학을 급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식사를 하고 소주잔을 기울이는 소탈한 모습 등으로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정 총장의 퇴임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정성어린 편지로 이별의 아쉬움을 전했다. “총장님의 자부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등등. 학생들은 최근 교내에서 열린 정 총장의 마지막 특강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모은 색종이 편지들을 향아리에 가득 채워 퇴임선물로 전달한 것이다.  
정 총장은 “4천여 한기대인들 덕분에 2년여 동안 많은 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돼 즐거분하다”며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해준 한기대인들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며 그 인연과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이임식을 끝으로 한기대를 떠나는 정 총장은 다음 학기부터 수도권 모 대학에서 경제학 강의를 맡아 학생들을 다시 만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 총장은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광주지방노동청장, 노동부 노동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에덴원과 자매결연



전남개발공사(사장 이동진)는 15일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이사장 정시채)과 자매결연하고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대학생 IT현장 실습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유창중)는 지난 14일부터 8월8일까지 관·산·학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 컴퓨터공학부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IT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제공>

# 해군 장병들 시각장애인인과 7년째 희망의 멜로디

## 3함대 은광학교 학생에 악기 레슨

“보이지는 않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음악이 있어 행복해요.”  
영암군 삼호읍 해군 제3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구옥회)가 시각장애학생들과 함께 희망의 멜로디를 만들어 가고 있다.  
3함대 군악대(군악대장 김기현 원사)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매주 금요일 부대 내 군악대 음악 연습실에서 시각 장애인 특수학교인 은광학교(영암군 소재) 관악부 학생들에게 플루트와 클라리넷, 색소폰, 드럼 등의 악기를 지도하고 있다.  
이들의 인연은 2002년 당시 은광학교 관악부의 지도 요정을 부대(당시 목포해역방위사령부)가 흔쾌히 수락함에 따라 7년째 장병과 학생들의 정기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악기 레슨을 받기 위해 매주 초등학생부터 30세가 넘는 늦깎이 고등학생까지 15명의 남녀 학생으로 이루어진 은광학교 관악부가 부대를 찾고 있다.  
학생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탓에 군악대 장병이 먼저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학생들이 이를 따라한 뒤 장병이 다시 수정해주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뜻 보면 답답할 것 같지만 정작 가르치고 배우는 장병



해군 3함대사령부 장병이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은광학교 관악부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과 학생들은 즐겁기만 하다.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이여명 상병은 “처음에는 악보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할까 싶었지만, 연주하고 싶다는 희망 하나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열정에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 3함대 군악대와 은광학교는 2002년 목포 KBS 공개홀에서 합동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은광학교 학예발표회에서 합동 연주회도 열고 있다. /영암=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 고교생 기능경진대회 대상 이애정 양

조산이공대학(학장 김형근·사진 왼쪽)은 15일 대학 2호관 시청각실에서 ‘제11회 전국 고교생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전국 고교생 950여명이 참가해 기계CAD, 서양요리, 네일미용 등 15개 분야에서 기능을 겨뤘다. 대상인 광주 시교육감상에는 네일미용 부문 이애정(동일전자정보고 3년·) 오른쪽) 양이 수상했다. /정성필기자 camus@



## 광주지검 형사3부, 검찰 최우수 형사부

광주지검(검사장 황희택) 형사 3부(부장검사 양부남·사진)가 7월 중 전국 최우수 형사부로 선정됐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지방검찰청 일선 형사부를 대상으로 각종 연구실적 및 업무처리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광주지검 형사3부를 7월 중 최우수 형사부로 선정했다.  
특히 광주지검 형사3부는 우수 형사부 추천 대상 형사부 중에서도 전체 성적 1위를 차지했다.  
우수형사부 선정은 대검이 2개월에 한 번씩 각 검찰청 규모에 따라 비교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각 그룹별로 선정하게 되며,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주로 민생



과 관련된 사건을 일선 경찰서 등으로부터 송치받아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최근 수확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조 전세버스 회사 업무 등을 적발하는 등 급속도로 주요 사건을 처리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처리 실적을 평가받았다.  
또 무고 사범·수사지휘의 적정성·사건처리의 신속성 등 형사부 업무처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업무처리와 관련된 각종 연구실적 및 전담 업무처리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최권일기자 cki@

## 김자옥, 지난 5월 대장암 수술 받아

중견 탤런트 김자옥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김자옥의 소속사에 따르면 김자옥은 지난 4월 말 종합 검진을 받던 중 대장암 판정을 받고 5월 초 바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는 좋았으며 그는 5월 말부터 SBS TV 드라마 ‘워킹맘(가제)’을 촬영하고, KBS 2TV



‘해피투게더’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활동 중이다. ‘워킹맘’은 ‘일지매’ 후속으로 30일부터 방영 예정이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측

▲장남씨 차남 경태군 임두홍씨 3녀 미향양=19일(토) 낮 1시 천변로 사자공원 건너편 베니스웨딩컨벤션 꿈에 그린홀.

### 동창·동문회

▲복성중 17회 동창회(회장 김용우) 월례회=17일(목) 오후 7시 일송정. 062-525-9977.  
▲복성중 18회 동창회(회장 이태역) 월례회=18일(금) 오후 7시 삼원식당. 062-512-8662.  
▲강진 도암 산정초교 2회 동창회(회장 김길숙) 산이모=19일(토) 오후 2시 광주 용봉지구 큰바다 해물탕. 062-515-3339.  
▲복성중 19회 동창회(회장 손영환) 월례회=19일(토) 오후 7시 천

하일품. 062-376-3032.  
▲조대부고 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 모임=19일(토) 오후 6시 광주 백운동 모야산부인과 옆 대나무집. 062-671-8453.  
▲재광 진도 고성중 동문회(회장 광기석) 월례회=21일(월) 오후 7시 충장로5가 입구 서미정. 011-645-1758.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원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홍패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 동창회

▲전주리씨 원풍대군과 양도공공회 광주 중친회(회장 리영신) 월례회의=17일(목) 오후 6시30분 중친회 회의실. 062-654-2027.

### 모임

▲(사)한국호도회 광주시지부(회장 이용규)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백화원식당. 062-224-2450.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본점 6층.

### 모집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외국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향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액자·지갑·열쇠고리·휴대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062-512-4000, 062-528-8500.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천도교 광주교구 시일식 봉행=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광주 교당, 천도교 교인 및 동학에 관심있는 분 062-525-1391.  
▲불림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 모집=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 모집=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 부음

▲정영익씨 별세 박병근(광성산업 대표·전 현대자동차 상무)·정민·정순·정미씨 모친상 신감재(서울 대아산업 이사장)·강진(롯데리

아 광주터미널집 대표)·이창환(서울 메디피아내과 의사)씨 빙모상=발인 17일(목)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성양매씨 별세 박상수(전 뉴스광주 전남본부 기자)씨 모친상 고한승(목포 석현초교 교사)·최인범(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장)·배석인(고려기술공사 상무이사)·문일성(윤건축설계사무소)·이병목(한성산업)씨 빙모상=발인 16일(수) 목포 삼목장례식장. 061-274-4441.  
▲정춘자씨 별세 이재문씨 상배 곤행(사업)·철행(전국경제인연합회 차장)·창행(KTV 네트워크 차장)씨 모친상 김근관(장성 성산초교 교사)·염미경·황연실(역삼세무소)씨 시모상=발인 16일(수) 광주 성요한병원 장례식장. 062-510-3114.  
▲정병훈씨 별세 성재(하리농장)·성호·성철(건설업)·영숙(교사)씨 부친상 박재광(우)씨 빙부상=발인 16일(수) 송정장례식장 1호실. 062-941-4400.  
▲윤덕남씨 별세 김희중·오한·귀례·귀남·순애·순심·순복씨 모친상

선일·진우·건우씨 조모상 선낙홍·모용원·우병두·김강화씨 빙모상=발인 16일(수)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6분향소. 062-250-4406.  
▲전갑민씨 별세 춘희(자영업)·철희(명품오리)·연희(대신증권 무등지점 차장)·미숙·미순(장애인복지관)·미란(백병원)씨 부친상 신동열(삼성화재)·강락원(회계사)·이차범(목사)씨 빙부상=발인 16일(수) 송정장례식장 3호실. 062-941-7103.  
▲최병열씨 별세 윤준·윤식·윤선씨 부친상 한상열·백선성·김철이·서영섭씨 빙부상=발인 17일(목)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형제공원  
가족님들 모두 특별분양  
☎ (062) 222-0201